

동국대 2005년도 후기 불교학 박사 8명

동국대 2005년도 후기 불교학(불교학과·선학과·인도철학과) 박사학위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총 8편이다. 이번 논문의 특징 중 하나는 스님들이 '수행'에 초점을 맞췄고 재가자들은 '불교 전반'을 아우르는 것에 역점을 뒀다는 것. 심사를 통과한 8편의 논문을 요약해 소개한다. 정리=노병철 기자

화랑 스님(선학과)

'운서주공의 선사행관 연구'

중국 명나라 시대의 열불수행은 운서주공에 의해서 선과 정토를 결합한 선정일치 또는 선정겸수가 조화된 수행으로 발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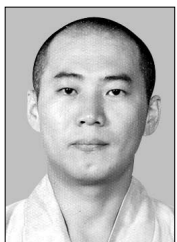
주공은 선정일치의 관점에서 열불을 권장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토수행자는 아니었다. 하근기를 위해 열불문(佛門)의 타력정토를 권장했지만 사실은 이 사원용(理事圓融) 화엄의 원돈관에 바탕한 유심정토로서 일심불란(一心不亂)으로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는 화엄선의 정토를 설하고 있는 것이다.

화엄관 바탕한 유심정토 양명학 등과 폭넓게 교류

적멸 스님(선학과)

'선원청규 연구'

중국이라는 새로운 토양 위에 불교가 전해지고 또 다시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새로운 선종교단의 창립과 더불어 행동규범인 청규가 탄생되었다.



부처님의 생전시대와 백장이 생전하였던 시대는 약 1300여 년이라는 긴 시간적 차이가 있다. 부처님이 계율을 제정하여 승가를 보존하고 유지해 온 이후 1300여 년 만에 백장회해선사에 의해서 승가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완비되었던 것이며, 그 명칭은 보편적으로 '백장청규'라고 부르고 있는 <선문규식>이다.

승가 보존·유지 제도 완비 대중 생활 등 승단행례 답아

성관 스님(불교학과)

'백파공선의 사상연구'

조선시대 백파공선의 선사상은 역대 선사들의 선지를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삼척전심 등에서 보이는 살할변에 의리선을 포괄적으로 삼



중선에 적극 수용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선교합을 이룬 셈이다. 백파는 선지인 의리선이라는 교학적 선의 의미를 선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으면서도 조사선으로 증득과 해득, 증오와 해오의 차이를 둬서 선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았다.

역대 선사들의 선지 통합 살할변에 의리선 포괄 수용

배관성(불교학과)

'인도밀교의 성립배경 연구'

불교 역사상 가장 나중에 성립된 밀교는 인도불교의 모든 교학과 수행체계를 통합하고 부처가 설한 연기법을 인도의 종교적 전개에 따라



변모·정착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기설의 중심이 되는 무아설과 중도설의 교리는 부파불교 이후 대승불교시대를 여러 사상적 발전을 이룩했지만 공통적으로 공성과 현상의 실체를 해명하는데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으며 밀교와 관련한 진언과 만다라 등의 의례도 이러한 교리적 토대를 계승해 성립된 것이다.

인도불교 교학·수행법 통합 중생구호 이타심 강조

문무왕(불교학과)

'북위불교와 석굴조영 연구'

북위(北魏)의 석굴조영은 북위의 사회·문화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입과 동시에 중국의 불교 정착화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증거다.



석굴의 개작과정을 통해 북위사회에 불교가 한층 더 공고히 뿌리내리는 모습을 살필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는 한족화 과정과 불교신앙의 성숙 등이 함께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운강석굴 개작과정서 국가불교화 특징 나타나

정진홍(선학과)

'조주선 연구'

조주선사의 생애는 그대로가 선종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다.



조주선사상의 특징을 대체로 마조→남전→조주로 이어지는 사상적 핵심인 '평상심'과 관련되어 대가대응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조주의 생애 자체가 선종사 사상적 핵심 '평상심'

황정일(인도철학과)

'설일체유부의 삼세실유설 연구'

세친(世親)이 설일체유부의 삼세실유설을 비판하는 기본적 입장은 <승의공계경>에 근거한 것으로 "본래 없다가 지금 있고 있다가 없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반면 유부의 존재론적 관점은 과거와 미래에 실유하는 법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친이 현재법만의 실유를 근거로 현재의 실유만을 주장했다면, 유부는 과거·미래법의 실유를 근거로 과거·미래의 실유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찰나적 시간 현재 인정 과거·미래 실유하는 법

장미란(불교학과)

'중불교 정착화 과정서 본도기와의 관계'

중국 후한시대의 황노학은 신선사상을 수용해 종교철학적 성향으로 모습을 바꾸면서 황노의 신격화 현상과 장생불사를 추구하는 초기



도교의 성립에 이론적 근간과 불교의 전래시기에 전래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후한시대 불교-도가 인연 위진 때 '격'의 형태로 주목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59>

자동차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은 아마도 자동차가 아닐까 싶다. 30년 전 정부가 '마이카시대'를 이야기했을 때 집집마다 자동차를 소유할 것이라고 믿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자동차는 이제 우리의 생활 패턴까지도 바꿔 놓았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시간과 공간의 변화이다.

석유 에너지 고갈·이산화탄소 배출 주범 언제까지 욕심과 편리만 추구할 것인가

가장 큰 부정적인 면은 역시 석유 에너지 고갈과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이라는 점이다.

자동차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대기권에 잔류하면서 지표면에서 주로 방출하는 에너지를 방해함으로써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자연은 이산화탄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시 지구로 불러들인다. 식물의 광합성 그리고 바닷물의 자연용해 과정 등이 그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기술자들은 석유를 태우는 엔진 대신 전기로 가는 연료전지차를 미래의 대

안으로 내놓고 있다. 어느 화학자는 인류의 발전을 에너지를 소모하는 방법에 대한 역사로 보기도 한다.

이후 인간은 석유를 고급 에너지원으로 개발했다. 석유는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탄화수소이다.

부산 출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과학기술자들은 탄소 대신

수소를 산소와 결합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얻고자 한다. 이때 배출되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아닌 물이므로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다.

주말에는 사찰이나 교회 부근 주차장에서 주차로 인한 싸움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이뿐인가, 종교인도 더 크고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한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문병성

전통따주기도사 강좌 (2박3일) 안내

1. 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2. 따주기의 특징

- 신경을 자극하고, 딱한 피를 맑게 합니다.
●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키고, 나쁜 피는 사혈합니다.
● 월 1회 따주기로 사전 건강관리
●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약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 자신 및 가족 건강관리
● 학생지도(고교생, 대학생)
● 신도 포교
● 따주기 사회봉사
● 전통따주기도사로 활동

4. 따주기로 건강관리 범위

- 뼈 및 수술한 부위를 제외한 모든 분야
● 마음과 육신

5. 강좌 인원

- 선착순 20명(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직접강의)

6. 9월 강좌일

- 2006. 9.8(금) ~ 10(일)

7. 특전

- 18시간 교육이수 후 수료증 수여
● 교재·사혈기 및 필수 부항·펌프 보시

8. 강좌문의 054)837-3477

(장소: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내)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

당신에게 연꽃향기를 전해드립니다

혜정정사의 밀교수행강좌 모음집



불교TV에서 방영됐던 혜정 정사의 밀교수행강좌 26회분 모음집입니다.

컴퓨터로 볼 수 있고 일반 DVD로도 볼 수 있습니다. DVD로 볼 수 있는 것은 압축한 시디 1장입니다.

모두 10장이 한 세트에 되어 있습니다. 100세트 한정으로 제작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배송료를 포함해서 6만원입니다. 국민은행(예금주: 최중용) 계좌번호 661725-89-144651로 송금하시고는 반드시 전화 031)254-2585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송금확인 후 주소확인이 되는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